

미래사회 준비상황

김 천 사

우 리나라는 미래사회에 대한 준비를 잘 진행하고 있는 것일까? 미래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정보화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얼마 전 정보통신 업계의 사람이 우리나라 정보화 수준이 세계적 이라고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것을 들었는데 사실일까?

전전자 교환기를 생산하고, 256메가 DRAM을 만들고, 세계 처음으로 CDMA 기술을 상용화한 이동통신망을 성공시키고, 개인용 컴퓨터의 생산과 보급률이 아주 높다. 세계적으로도 팔목할 만한 정보산업의 모습이며, 외국의 개인용 컴퓨터가 맥을 못 추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컴단 하드웨어 관련 정보산

업은 수출의 효자 노릇을 단단히 하고 있어 마음도 든든하고 자랑스럽기도 하다.

그런데 왜 내놓을 만한 소프트웨어는 하나도 눈에 띄지 않는 것일까? 소프트웨어 산업이 정보산업의 양대 축 중의 하나가 분명하고, 소프트웨어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도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내세울만한 소프트웨어 제품은 하나도 없는 것일까?

‘하늘이 내린 기회’에서 우리나라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훌륭한 자질을 지니고 있어 정보화 사회에서는 세계를 앞서갈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또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도 좋고 교육수준도 높아 소프트웨어 산업을 국책산업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아울러 정보화의 기본 도구인 컴퓨터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중의 하나다. 훌륭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자질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정보화를 잘 이룰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정보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실은 매우 비관적이며, 결코 우리의 정보화 수준은 세계적이지 못하다.

정보화를 후기 산업사회의 총아인 정보통신 기술수준으로만 판단하지 않았으면 한다. 정보화 수준은 그러한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여 사회제도와 국민의 의식과 행동이 얼마만큼 바뀌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가늠해야 한다. 즉,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활용수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소프트웨어는 이를 개발하는 조직이나 사

회의 제도와 관습과 행동방법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특히 응용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도 간혹 기술적인 처리방법을 소프트웨어로 개발한 것은 외국에서 호평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응용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데, 이 점이 바로 우리의 제도와 관습과 행동방법이 세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상태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다. 이렇게 주장하면 왜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절대로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관점이 아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기본 자질과 소양은 매우 높지만, 정보화와 관련한 사회제도나 관습, 국민들의 인식, 지도자들이 제시하는 방향, 방법 등에 있어서는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기업의 현실을 보자. 컴퓨터를 도입하는 것을 마치 최신 생산기계를 도입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여, 빨리빨리 설치하고 빨리빨리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빨리빨리 적용하기를 기대하고 독려한다. 그리고 실패를 거듭하다가 다시 개발하거나, 이왕 개발한 소프트웨어니 효율성과 관계없이 계속 사용하려고 애를 쓴다. 할 일은 늘어나고 업무생산성은 떨어진다. 프로그램은 수없이 만들어졌는데 막상 활용할 만한 것은 얼마 되지않는 수준이다. 운영비용은 갈수록 늘고 효과는 적으니 정보화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고, 정보기술 전문가에 대한 불

신은 모아진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정보기술 담당자들 스스로는 이를 잘 알고 있다.

공고부문의 현실은 또 어떤가?기관별로 정보화에 대한 뚜렷한 중 장기 계획을 갖추고 있는 곳은 별로 없다. “정보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정보화가 미래사회를 좌우합니다”라고 역설하는 분에게 실제로 물어 본 일이 있다. 정보화 마인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 이냐고. 정확한 대답을 들었다면 참으로 좋았겠지만 단지 정치적인 구호 뿐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뿐이다.

정보화 예산과 추진조직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빈약하기 이를데 없는 예산배정, 경험없는 행정직이 대부분인 정보화 추진 조직, 상호간에 연결되지도 않고 활용성도 떨어지는 각종 정보시스템, 비계획적으로 불쑥불쑥 개발하고 있는 수많은 소프트웨어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정책을 입안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분들만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얼마 전 잡지에서 어떤 기관의 정보화에 대한 글을 읽은 일이 있다. 글의 내용에 의하면 그 기관의 정보화는 대단한 수준이라 판단 할 수밖에 없는 좋은 글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글을 쓴 분은 일반 행정직에 있다가 정보화 부서에 발령된 지 몇 개월 안 되는 분 이었고, 그 기관의 정보화는 발전할 여지가 훨씬 더 많다고 판단되

는 그런 곳이었다.

정보화를 첨단기구나 기술을 도입하는 개념의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 지도자들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기술은 실무자의 몫이니까), 특별한 방향설정도 하지 않을 것이며, 더더욱 사회제도와 관습을 고쳐야 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것이며, 따라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지도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의 정보화 현실이며 미래를 위한 준비 상황이다.

첨단 정보기기를 잘 만들 수 있다 하여 정보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각 기관의 정보화는 세계 수준에 크게 뒤떨어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첨단 정보기기와 같이 겉으로 보이는 부분보다는,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사회적 제도, 관습, 규범, 국민들의 인식 등과 같은 실질적인 내면을 개혁하는 일을 보다 중요시하고 강조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정보화이다.